

울산 어음리 경작지에서 발견된 화분포자화석

¹윤혜수 · ²이종덕 · ²김향숙* · ²박영숙

(¹충남대학교 지질학과 · ²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북쪽지역에서 경작지 지층을 포함하는 3개의 단면에 대해 지질학적인 조사를 하였다. 연구지역은 농경생활하기에 적합한 저지대 충적지가 많고 식수와 농수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용이한 강과 냇가 분포하고 있어 화분포자 분석을 통한 연구로 농경생활에 따른 경작지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35개(1단면:16개, 2단면:12개, 3단면:7개)의 시료에서 목본화분, 초본화분과 담수조류가 산출되었으며 퇴적후 산화작용에 의해서 또는 퇴적과정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filtration 되어 산출량이 적고 보존상태도 불량하다. 목본 화분은 소나무속, 오리나무속이 우점으로 산출하고 그 뒤를 이어 목련속, 참나무속이 전 구간에 걸쳐서 비교적 다량으로 산출한다. 초본 포자 및 화분으로는 벼과, 고사리류 포자, 보풀속이 우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썩속, 사초과, 국화과, 명아주 등이 비교적 많이 산출한다. 초본화분 중 벼과, 사초과 및 썩속들은 모두가 농경생활의 지표가 되는 작물로서 인간간섭의 증거가 된다. 이들 식물은 인간이 농경생활을 하면서 주로 식량원으로 이용되는 것들로 당시 이 지역에 경작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지시한다. 화분분석결과에 따라 3개의 단면(1단면: -65 cm, 2단면: -65 cm, 3단면: -85 cm)은 서로 대비가 되는 층준이며 이 층준을 경계로 하부와 상부로 나눌 수 있다. 상,하부 화분포자군집의 차이는 기후조건의 변화와 퇴적환경의 변화 또는 인간의 간섭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간 간섭에 의한 퇴적체계교란의 복합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지질조사와 퇴적물 분석에 의하여 연구지역은 과거에도 인간들이 농경생활하기에 적합한 저지대 충적지로서 존재하였음을 지시하며 화분포자 분석결과는 오늘날과 비슷한 온대 기후조건이었던 것을 시사한다.